

“승산 없다”...나주시, SRF 사용허가 소송 항소 취하 결정

지역난방공사도 손배소송서 공무원 제외

“환경권·건강권 확보...공사와 협의 지속”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사용 허가를 포함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다하는 전남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6년 소송이 조만간 일단락 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기한 '나주혁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나주시는 소송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에 따라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앞서 나주시와 사전 협의를 한 난방공사도 나주시의 항소 취하에 맞춰 시와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공무원을 제외하고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여억원을 들여 나주혁신도시에 집단 열공급을 위해 2015년 12월 준공한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그동안 건강권 침해를 염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정상 가동을 못한 채 11건의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대부분의 소송이 난방공사 승소로 마무리된 가운데 SRF 사용 허가와 관련한 소송만 진행중이었지만 나주시의 항소 취하로 SRF발전소를 둘러싼 모든 소송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해당 소송은 앞서 2021년 10월 18일 난방공사에서 사용 승인을 얻은 SRF가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나주시가 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난방공사가 SRF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지난해 8월 25일 1심 판결을 통해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SRF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로 난방공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난방공사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나주시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나주시는 SRF 품질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재량권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1심 판결 이후 9월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는 취하지

만 앞으로 발전소 가동에 사용되는 SRF에 대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만들어 철저히 조치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항소심 취하 결정을 계기로 난방공사 측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

인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난방공사와 SRF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감시단 구성', '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 감시실시', '사후 환경영양조사' 추진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발전소 가동과 관련 시민과 보다 적극 소통하고, 환경성 강화와 주민 건강권 확보에 주안점 둔 후속 조치를 기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성금 전하는 고사리손

2월28일 광주 북구청 직강어린이집 원아들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함을 구청 내 은행 점포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부모님 앞길 막힐 수도 있구나”...청소년들 학폭 경각심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에 중·고교생들도 촉각

“내 문제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앞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정순신(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사퇴한 가운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29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최근 넷플릭스 ‘더 글로리’,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 등 학폭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중·고등학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언론과 드라마 등 매스컴에 관련 내용들이 자주 나오다보니 폭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경각심을 가지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 군포시 소재 고등학교에 김모(18)군은 “친구들 사이에서 학폭이 범죄라는 인식이 많이 강해졌다”며 “예전에 비해 확실히 폭력의 범위를 좀 더 넓게 생각하게 된 것 같고 그런 행동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정순신 변호사 관련 기사를 보면서 내

문제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앞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친구들끼리도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서울 은평구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강신환(17)군은 “친구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폭력을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정 변호사 아들이 ‘제주도에서 온 돼지XX’, ‘빨갱이XX’라고 피해자를 욕했는데 그게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많이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끼리도 절대 공부만 잘하는 괴물이 되지 말자고 말한다”며 “또 앞으로도 학

급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 범죄를 정당화하지 말고 또 방관하지 말자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학교 차원에서도 이 같은 상황들을 반영해 학폭 관련 교육을 많이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현주(29)씨는 “아직 방학 중이긴 하지만 최근 학교에서 학폭 관련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교사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며 “개인적으로 이런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물리적 폭력에 대한 신고가 잦았던 반면에 최근에는 욕설 등 비물리적 폭력에 대한 신고가 늘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학기 기준 학폭 심의 건수는 1

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언어폭력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언어폭력 신고 비율은 41.7%이었고 지난해에는 41.8%였다. 지난 10년간 언어폭력 신고 비율은 매년 30% 초중반을 기록했다.

서울 강동구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영환(15)군은 “학교 폭력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최악의 범죄”라며 “자기 자신의 인생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달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건강한 밥상의 시작

청정옐로우시티 장성 먹거리